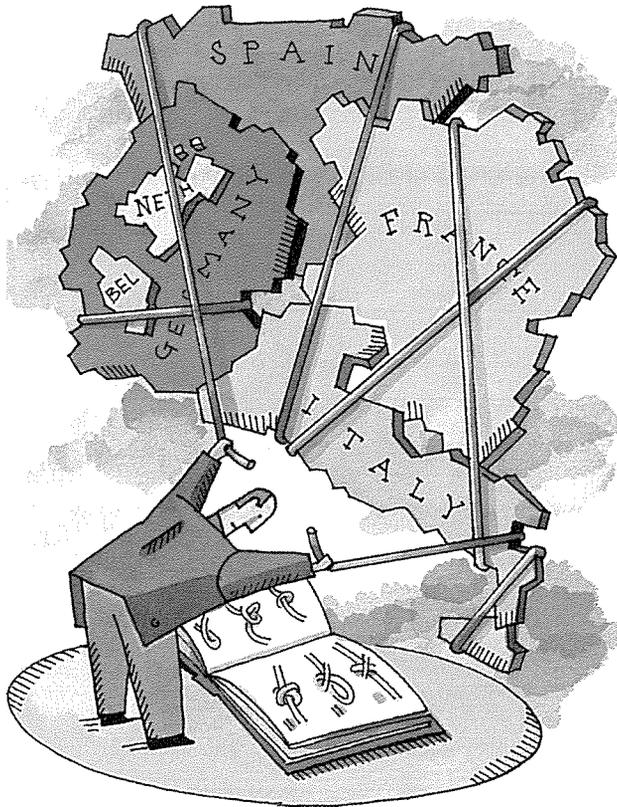


에이즈의 역사 V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해소가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공통 과제로 떠올랐으며 각 나라별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지구촌 전체의 숙제로 인식된 에이즈의 예방이 어느 정도 성과를 향유하기 시작하였으며, 에이즈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노력의 결과로 인류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신수린 *前 분회 사업부장



2002 유럽국가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성인 인구의 1%가 HIV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국무장관인 콜린파월은 콘돔사용이 에이즈와 성병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성교육관과는 다른 입장이었다.

새로운 콘돔이 브라질에 소개되면서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팀의 로고가 새겨져서 출시되었고, TV광고에서는 축구팀 팬들이 콘돔모양의 축구모자를 쓴 광고가 방영되었다. 또한 연말에는 HIV 예방캠페인이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한 연구 조사 결과에서 약 50%의 미국인은 에이즈가 HIV/AIDS 감염인과의 일상접촉을 통하여 감염될 수 있고 고위험행동군의 사람들은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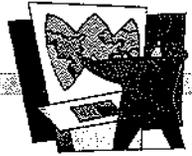
중국정부는 에이즈 사례가 약 17%가 증가했다고 보도하였으며 HIV/AIDS 사례를 약 200,000건으로 추정하였는데 이중의 반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 유엔에이즈와 세계 보건기구는 중국 내에 약 1백 5십만 명이 HIV/AIDS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포르투갈에서 인구 100만 명당 HIV/AIDS 감염인의 수가 104.2명으로 EU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EU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인구 백만 명당 25명 정도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투갈에서의 주요 감염의 원인은 마약주사기 공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펀드의 이사회장으로 리처드 파침 박사가 취임하였고, 12월에 1백만 달러의 펀드가 지원기금으로 배분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난한 나라에 항바이러스약을 배분하는 기준을 마련하였고 12가지 기본적인 항바이러스 약제를 발표하였다.

4월에 남아프리카에서는 HIV양성인 임신부에게 수직감염을 줄이기 위해 네비라핀을 공급하고 강간을 당한 여성들에게 PEP(Post Exposure Prophylaxis)로 AZT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세계은행은 아프리카의 몇몇 지역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에이즈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교사가 부족하며, 우간다와 말라위의 학교 교사 중 약 삼분의 일이 HIV 양성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시기에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HIV/AIDS가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이러한 속도라면 2020년에 가서는 노동력의 13~38%를 잃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파푸아 뉴기니에서의 주요 감염경로는 이성애를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의 한 연구에서 HIV 음성인 13명과 HIV 양성인 사람과의 19,000번의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구강성교로 인한 HIV에 감염 사례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7월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국제 에이즈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는데 가난한 나라의 HIV 감염인에게 대한 항바이러스 약제 공급이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이 회의에서 주사형태의 T-20 약제(핵융합 억제제)의 시험에 대한 연구가 소개되어 에이즈 약제에 대하여 내성이 있는 HIV 감염인에게 희망을 주었다.

지난 6년 동안 에이즈 고아의 숫자가 3배로 늘어나 전 세계적으로 약 1천3백4십만명의 에이즈 고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장 많은 에이즈 고아를 가진 나라는 인도로 2001년 말에 약 120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남아프리카의 세서미 스트리트(Sesame Street) 어린이 쇼에 카미(Kami : 스와나어로 "수용"이라는 의미)라는 HIV 양성 캐릭터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는 HIV 족적검사가 미국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다. 미국 정부는 이 족적검사가 특히 HIV 검사 후 결과를 보려 오지 않는 사례와 분만 중의 산모의 HIV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사상 처음으로 HIV에 감염된 여성이 전체 감염인의 50%를 차지하게 되었다.

아프리카에서는 의료기구나 의료시술을 통한 감염이 그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다.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에이즈의날을 기념하여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를 불식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2003

아프리카의 스와질랜드에서는 HIV 성인감염률이 10명 중 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1월의 신년연설에서 5년에 걸쳐 아프리카와 카리비안 해안의 나라들에 약 15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하였다.

2월에 아주 드문 경우인 여성끼리의 성접촉으로 HIV가 전파된 것을 밝혀내었다. 이는 원래 HIV 양성이던 파트너의 몸에 있는 몇몇 항바이러스 약제에 내성을 보이는 HIV가 음성이었던 파트너의 몸에서 발견됨으로써 확인되었는데, 감염경로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성관계시 섹스토이를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쿠바에서는 마약사용자나 수혈을 통한 감염 혹은 수직감염으로 인한 HIV 감염이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었으며, 감염된 임산부에게 AZT를 공급하고 제왕절개를 통해 아기를 출산하게 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은 0.03%의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자국의 HIV/AIDS 감염인을 위해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 제제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었다.

사하라이남 지역 아프리카에서 HIV/AIDS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은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라고 발표하였다.

제약회사인 박스젠은 에이즈 백신 임상시험에서 흑인과 황인종에서만 약간의 실효를 거두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HIV/AIDS에 대한 백신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가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과학자들은 유럽에서 여자들이 남자들의 감염속도만큼 빠르게 감염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사용한 바늘과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clean needle exchange program)이 유럽에서 매우 효과적이어서 마약사용으로 인한 HIV 감염이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거의 사라졌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매우 줄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러시아는 드디어 세계은행으로부터 HIV/AIDS와 관련한 자금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1억3천4백만 달러의 돈을 향후 5년에 걸쳐 HIV/AIDS 영역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HIV/AIDS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퓨전억제제인 T-20가 처음으로 미국 식약청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는 복약용이 아닌 주사용으로 이미 다른 항바이러스 제제에 내성이 생긴 HIV 감염인들에게 처방할 수 있는 새로운 약제였다.

벨기에 과학자들은 HIV-2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원숭이인 sooty mangabeys에 의해 인간에게 전파된 것이 1940년대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출신의 이종욱 박사가 세계보건기구의 총장이 되면서 HIV/AIDS가 그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9월에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약 6백만 명이 항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 그 당시 약 3십만 명만이 약제를 공급받고 있으며, 남아프리카에서는 약 4백십만 명이 약제가 필요하지만 약 1%만이 공급받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바티칸의 알폰소 투루질로 추기경은 콘돔이 안전하지 않으며 HIV/AIDS도 막아내지 못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세계보건기구는 그러한 바티칸의 발표에 대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2003년에 많은 제약회사들이 항바이러스 약제의 가격을 내렸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HIV/AIDS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역에서 약값의 저하뿐만 아니라 병원 체계 및 의료인의 훈련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은 한 해이기도 하였다. 세계 에이즈의 날에 세계보건기구는 3X5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2005년 말까지 가난한 나라의 3백만 명에게 항바이러스 약제를 공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중국 총리 온가보가 세계에이즈의 날에 에이즈 감염인과 약수를 하는 사진이 널리 보도되었는데 이는 중국정부가 HIV/AIDS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싸워나갈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또한 가난한 도시 감염인들과 농촌 감염인들에게 무료로 항바이러스 약제공급; 무료익명검사; 수직감염예방을 위한 약제 무료공급; 에이즈 고아에게 학교 무료교육; HIV/AIDS 감염인에게 보살핌과 경제적 도움을 주는 내용의 "Four Frees and One Care" 정책을 발표하였다.

2004

1월에 브라질 정부는 제약회사에게 에이즈 약제의 값을 3분의 1로 줄이도록 하였는데, 이로써 브라질 정부는 약 1억 달러의 절약 효과를 보았고, HIV/AIDS 감염인들은 한 달에 약 1,200달러 정도의 약값을 지불하게 되었다. 에이즈 예방 정책의 하나로 카니발 때에 약 1천만 개의 무료 콘돔이 배포되었다.

2월에 말라위의 몰리지 대통령은 자신의 동생이 에이즈로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발표한 것이었다.

글로벌 펀드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던 3가지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원을 중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프로그램이 천천히 진행되는 것과 행정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발표하였다.

러시아의 몇몇 지역과 동유럽에서는 HIV가 그 어느 곳보다도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었다. UNDP에 의하면 러시아인의 경우 100명 중 한 명이 감염된 정도이며 2045년도 즈음에는 약 2천만 명이상이 HIV/AIDS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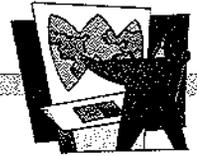
3월에 미국 식약청은 혈액검사가 아닌 구강점막 세포를 통한 HIV 신속검사를 처음으로 승인하였다.

한 연구에서 우간다의 HIV 유병률이 1990년대에 비하여 약 70%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간다 국민들이 각자의 성과파트너 숫자를 줄이고 지역사회에서의 에이즈 예방 노력이 결실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포르노 배우 5명이 감염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포르노 사업에서 에이즈 감염의 공포가 확산되었다. 부시 대통령의 PEPFAR(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에 의하여 150억 달러에 대한 실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2005년 6월까지 약 15개국의 200,000명에게 에이즈 치료약제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빌 &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글로벌 펀드에 5천만 불을 기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리하여, 총 1억 5천만 불을 기부하게 되었다.

'Women, Girls, HIV/AIDS' 가 2004년 세계 에이즈의 날 캠페인 구호로 정해졌다.



2005

연초에 유엔에이즈는 각 나라 정부와 자금을 주는 단체와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미래 에이즈 확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각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

PEPFAR는 generic 약의 사용을 에이즈 약제로 인정하지 않아 비싼 약을 공급하고 있었으나, 미국 식약청은 남아프리카에서 생산된 generic 약을 승인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프리카에 저렴한 에이즈 약제가 공급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자신의 장남이 54세에 에이즈로 사망했다고 발표하였다.

남아프리카의 사망진단서 분석에 의하면 사망자수가 1997년에서 2002년 사이에 약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25세에서 49세 사이의 사망자는 116% 증가하였고, 2000년과 2001년 사이의 사망진단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에이즈 사망의 약 3분의 2가 잘못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에 미국의 Institute of Medicine은 네비라핀과 관련된 방대한 양의 연구를 분석하여 네비라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직감염예방 약제임을 발표하였다. 브라질은 성매매를 비난하는 성명을 공표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PEPFAR가 제공하겠다는 4천만 달러를 거절하였다. 거절의 이유에 대해 브라질 HIV/AIDS 프로그램 국장은 "브라질 정부의 HIV/AIDS 정책결정의 고유권, 인권 원리와 도덕성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라고 설명하였다.

유엔에이즈는 3X5정책이 의도했던 것처럼 2005년 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영국에서는 "아프리카의 해(Year of Africa)"를 기념하며 아프리카에서의 빈곤과 질병의 완화를 강도 높게 외쳤다.

G8정상회담이 스코틀랜드에서 열렸고, 토니 블레어 영국수상은 정상회담의 주제를 '아프리카와 변화(Africa and climate change)'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상회담은 여러 콘서트와 Make Poverty History 캠페인이 벌어지면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세계의 지도자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2010년까지 2배로 늘리고 18개의 빈곤한 나라의 빛을 탐감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여겨지는 거래

공정화(trade justice)의 개선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었다.

남아프리카의 사전진찰소에서는 2004년 말로 임신부의 29.4%가 HIV 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펀드는 우간다 정부, 특히 보건부의 부정을 이유로 모든 지원을 멈춘다고 발표하였다. 11월에 우간다 정부와 지원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약속, 지원을 계속하기로 협의하였다.

8월까지 8개의 generic 약제가 미국식약청의 승인을 받았지만,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계보건기구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이 약제들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ABC(Abstinence, Be faithful, Condom)는 HIV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었던 PEPFAR 정책으로, 결혼 전까지의 금욕을 강조하고 콘돔의 효과를 중요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HIV/AIDS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HIV/AIDS에 대한 기금을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비해 약 20배 증가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9월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지도부단에 대한 특허권이 만료되었는데, 이는 로얄티를 지불하지 않고 미국 내 어느 회사에서나 약을 생산판매 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미국식약청은 재빠르게 4개의 generic 형태의 지도부단 생산을 허가하였다.

에이즈에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은 나라 중의 하나인 짐바웨는 가뭄과 토지 재분배 프로그램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고조되었다. 이로 인해 에이즈 약제의 값(한 달 분)이 7월에 7.7달러에서 10월에는 46달러까지 상승, 많은 짐바웨 감염인들은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활비 때문에 항바이러스 약제를 살 수 없게 되었다.

11월에 영국의 앤드류 심프슨씨가 에이즈에서 완쾌되었다고 공연하였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아마도 그가 HIV/AIDS 감염된 적이 없고, 다만 처음에 위양성으로 판단 받았던 것이 아니었는가 의심하였다.

세계보건기구는 에이즈 약제의 접근성 증가로 약 2십 5만 명에서 3십 5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005년도의 신규감염인이나 에이즈 사망의 숫자도 그 전해에 비해 더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고 발표하였다.